

#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2021. 2. 8(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스마트시티과
담당	과장 전유도, 스마트인프라팀장 최성호, 담당 유다해(032-453-7476)

##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박차”

인천 스타트업파크, 지난해 스타트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많은 성과  
올해 효과적인 해외 진출 모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도 주력  
데이터 등 특화 실증 자원 자유롭게 활용하는 인천실증자유구역 도 계획

- 지난해 스타트업들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많은 성과를 낸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올 해에도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는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2월 말 개소식을 열고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을 키워드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및 바이오 융합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단일 사업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다.
-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공간을 조성하면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와 협력체계, 실증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지주, 셀트리온이 민간운영사로 나섰고 5

개 대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협력 파트너를 확보했다.

- 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됐다. 4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에 총 211개 기업이 참가했고 투자 유치 90여억 원, 신규 고용 250여명, 특허 출원 및 등록 100여건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수출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 각종 수상 등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를 만들어내 올 해 본격적으로 운영될 사업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국비 120억원 포함, 241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2월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운영 사업에 인천시가 80억원, 민간운영사인 신한금융지주가 3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올해에도 인천시 89억원, 신한금융지주가 3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에는 지난해 첫 단추를 끼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 및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기반시설(스마트도시 인프라, 항만, 공항, 산업단지), 데이터, 전문가 등 인천 특화 실증 자원을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실증자유구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올해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운영과 관련해 민간주도 프로그램인 ‘신한스퀘어 브릿지’는 지난해 11월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등 3개 트랙에 84개 기업으로 이뤄진 1기 멤버십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 또 인천테크노파크가 대행하는 공공주도 프로그램 ‘POOM’은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실증 상용화 지원 사업’, ‘스케일업 챌린지랩’, ‘부스

터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은 오는 3월 참가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	모집 기업	모집 공고
<b>실증 상용화 지원사업</b>	① 기업 당 1억원 내외의 실증비용 지원 ② 공간, 인프라/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등 실증 자원 제공	①실증자금 12개사 ②실증자원 10개사 내외	①3월 예정 (연 2회) ②수시모집
<b>스케일업 챌린지랩</b>	대학별로 특화된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을 연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바이오, 글로벌 진출 4개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20개사 내외	3월 예정
<b>부스터 스타트업 프로그램</b>	스타트업 지원기관 6개사와 스타트업 30개사를 매칭하여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여 육성	30개사 내외	3월 예정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증 상용화 지원 사업은 인천에 특화된 실증 자원을 제공, 유망 스타트업을 인천에 유치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당 1억원 내외의 실증비용 지원과 실증 자원 제공 등 2가지 분야로 나누어 30여개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 스케일업 챌린지랩은 세종대(빅데이터·인공지능), 인천대(스마트시티), 인하대·유타대(바이오), 연세대(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로 특화,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을 연계한다. 20개사 내외의 참가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 부스터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사 내외의 기업을 모집, 효과적인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방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협력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입주기업·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밋업데이’, ‘런치세미나’와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는 ‘IR 데이’, 인천 소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문가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도 계획돼 있다.
- 이와 함께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사무공간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테스트필드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실증지원랩을 구축, 사물형 인터넷 신제품을 실증

할 수 있는 공간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한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을 조성, 관련 스타트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상 회의실도 구축, 효과적인 비대면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

-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startuppark.kr)도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포털 연계 인프라, 클라우드 자원 인프라로 구성, 새롭게 오픈했다. 시민들도 가입해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고 인천 스타트업파크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지난 해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인천실증자유구역’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여 혁신 기술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